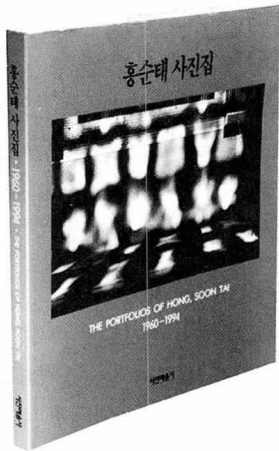


촌로의 얼굴에서 도시인의 영상까지

홍순태 《홍순태 사진집》



· 촌로(전북 임실, 1974) 왼쪽.
· 도시영상(서울, 1969) 오른쪽.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 사진이다. 하지만 찍는 이의 기질을 느끼지 못하면 단지 허상만 보일 뿐이다. 겹겹이 사진의 길로 뛰어든 시절부터 지금까지 찍은 사진을 모두 담았던 《홍순태 사진집》(1994, 사진예술사)은 30년 동안 사진의 길을 걸어온 작가의 기질과 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진집은 현대화가 진행되는 시골의 적나라한 풍경으로부터 시작한다. 농토를 일구며 살아가는 <이땅을 지키는 사람들>과 굴곡진 촌로들의 얼굴 <농촌의 인간상>에서 삶의 질긴 애환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모진 풍파를 견뎌냈을 이보다 오히려 푸근함이 느껴진다. 순박하고 솔직한 표정마다 고향의 정겨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라져가는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한국의 미>로 담아냈다. 역사의 아픔을 기록하는 것도 사진가의 몫이었다. 수많은 필름 속에 담아낸 것은 통일의 염원을 담은 <이산가족>의 상봉 장면으로 처절한 분단의 절규가 들리는 듯하다. 인공적 도시의 단편을 표현한 <도시영상>은 현대인의 갈등과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천착하고 있다. 도시영상은 단순한 영상적 묘사를 벗어나 도시인의 사회적 환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그의 무대는 해외로 옮겨진다. 외국에 대한 호기심은 <아메리카>를 시발점으로 전세계로 확대된다. 그러나 100여 개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의 귀속점은 동양 문화권으로 집중된다. 칼라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는 이방에 대한 호기심은 마침내 다큐멘터리 작업으로 이어져 호방한 기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진집은 그가 걸은 사진의 세계를 담아낸 백과사전이다.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등장했으며, 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온 그의 세계를 사진집 하나로 보여주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사진을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변모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의미가 깊다.

지금까지 20여회에 걸쳐 개인전을 가질 만큼 정열적으로 활동해온 홍순태씨는 《사진 예술론》(해뜨) 등 10여권의 저서를 펴냈다. 현재 신구전문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그는 지금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 오완진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231호 / 1998년 3월 5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증환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윤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이상준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일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IMF시대의 저렴하고 실속있는 출판광고!
빠르고 알찬 신간종합정보지 — 《출판저널》의
광고지략으로 출판계 깊은 불황의 주름살을
조금이나마 펴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광고문의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